

환경변인 및 부모-자녀 유대관계가 농촌 고등학생들의 자아분화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Environment and Parent-Bonding Relationship on rural high School
students' Differentiation of Self

영남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박사과정 백 양 희
영남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교 수 최 외 선

Dept. of Home Management Yeungnam University.
Doctoral Course : Yang Hee Baek
Dept. of Home Management Yeungnam University.
Professor : Wae Sun Choi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고찰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 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arent-bonding patterns & environmental variables on rural high school students' self-differentiation. The subjects were 600 rural high school students in the 2nd grade. The rural high school students' self-differentiation, according to parent-bonding style & environmental variables were researched with DOSS(Differentiation of self Scale) PBI(Parent-bonding Instrument) & environmental Scale. Th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 Reliability, ANOVA (scheffe'test) & Regression analysis of SPSS PC* program.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In P-B patterns generally frequencies of mother's care were higher than father's. But in overprotection frequencies of father's were higher. Degree of rural

highschool students' self-differentiation was on the level of 2.84

Second, According to parent-bonding patterns, the difference of self-differentiation were as follow. In P-B patterns, father and mother on each level of $P < .001$ brought differences in the self-differentiation of the 4 sub-divisions

Third, In short the effect on self-differentiation showed that in family environmental variables, parent's scolding, gender, family atmosphere & health conditions are crucial variables in self-differentiation and in P-B patterns, father's overprotection, mother's care, father's care are all influential on self-differentiation.

I. 서론

1.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청소년기는 인간의 전 생애를 통해 비교적 긴 시기로 질적 양적 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이며,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새로운 가치체계를 형성하려는 결정적인 시기에 놓여 있다. 이러한 다양한 변화의 발달을 나타내는 청소년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보다도 자아의 각성 및 확립이라고 볼 수 있다. 자기에의 각성에서부터 자아상이 형성되기까지 청소년들은 심각한 갈등과 회의에 빠지고,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행동을 초래하기 쉽다.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특징과 이런 특징이 문제행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Bloom(1964)은 인간의 행동을 개체(person)와 환경(environment)과의 함수관계(function)로 보아 환경을 개체와 기능적 관계를 가지고 행동을 규정하는 함수로 보고 있다. 따라서 환경은 인간의 성격형성 및 변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인간의 여러 가지 생활장면에 있어서의 행동은 그 개인이 자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개념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리고 그 개인의 자기 개념은 자기와 타인과의 관계나 환경과의 관계를 처리하는 능력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문제들의 가장 중요한 배경으로 가정이 지적된다.

Tauschke 등(1990)은 가정을 통해 인간상호관계, 특히 초기 가정내에서의 부모와의 관계가 대부분 사

회생활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Burger 등, 1975) 최근에 와서는 가족의 심리적 상호작용, 즉 가족의 역동성이 주요 요인으로 등장하게 되었다(Kleiman, 1981; Lewis 외, 1976). 연구에 따라서는 가족역동성에 대한 개념 규정에도 차이가 있고 복잡한 가족역동성의 개념을 체계적이고 일치된 결과로서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Kunce & Priesmeyer, 1985; Hoffman & Weiss, 1987). 그러나 가족역동성과 청소년의 부적응증상 및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들(제석봉, 1989; Fine, 1984; Hoffman & Weiss, 1987)에서는 가족역동성인 부모 자녀간 친밀도, 부모 자녀의 심리적 분리 정도 등과 발달과업 수행정도인 개인적 자율성, 대인관계 성숙도 등이 청소년의 행동기능과 생활에서의 적응, 즉 대인관계상의 문제, 학습문제 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가족역동성내의 주요 요인들을 비교적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기술한 Bowen의 자아분화이론은 각 가족성원들의 정서적 역기능을 유발케 하는 여러 기제들을 제시해 주고 있다(Kunce & Priesmeyer, 1985; Kerr & Bowen, 1988). Hartman(1981)은 자아분화가 잘 된 사람은 자기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시키지 않고 책임질 줄 알며 타인과 친근한 정서적 관계를 맺으면서도 잘 정의된 자아를 유지해 나간다고 했다(Bowen, 1965; Garfinkel, 1980). 그러므로 Bowen의 자아분화이론을 근거로 해서 가족체계의 부모-자녀간의 유대관계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가족역동성이 인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은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Bowen의 자아분화를 근거로 한 연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 보면 자아분화이론

을 근거로 연구해 보는 것은 가족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학문분야에서는 상당히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자아분화는 개인이 환경에 올바르게 적응하며 성장해 가는 데 지극히 필요한 목표로서, 청소년들을 지도해 나가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특히 농촌 환경에서는 지난날의 농촌 사회와는 달리 오늘날은 전통성을 크게 상실하였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기성세대와는 다른 체험을 하고 있고, 약화되어가는 가족관계와 근린관계 속에서 과거와 같은 분명한 가치규범이나 역할모형을 제시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급격한 사회변동 과정에서 사회의 가치체계가 혼란되고 문화단절현상이 빚어짐에 따라 가정, 학교, 친구집단 등 여러 사회기관이 제시하는 역할모형이 상치되어 농촌 청소년들에게 더욱 혼란스러움을 안겨주게 되었다. 그리고 농촌지역은 유교적인 사상과 더불어 아직도 가부장적이어서 가족내의 역할이 능력이나 기능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에게 많이 의존되어 있다. 특히 부의 권한이 절대적이며 따라서 부모-자녀 관계는 수평적 측면보다 수직적 측면이 강조되어 있다(이광규, 1984).

Jurich과 Jurich(1975)는 무조건적인 복종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전제적인 양육방식은 자녀에게 더 많은 정신적 문제나 문제행동을 야기시킨다고 한다(Rollins & Thomas, 1975). 나날이 늘어가는 청소년의 정신과 행동의 장애의 주원인이 생활사건에 의해 빚어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oddington, 1972; 임호균, 1986). 따라서 농촌의 환경과 결부되는 생활장면에서의 부모-자녀유대관계와 자아분화정도를 알아보고, 부모-자녀유대관계에 따라서 자아분화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면 또 이러한 변인들이 자아분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봄으로써 가족체계이론의 정립뿐만 아니라 농촌 고등학생들의 부적응이나 문제행동을 지도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제공에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정환경변인

Bloom(1964)은 장기간에 걸친 경험적인 연구와 환경의 작용에 관한 문헌을 분석해 본 결과, 환경적 요인이 상대적으로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는 점을 밝혔으며, 따라서 환경은 인간의 성격형성 및 변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가정은 일차적이고 근본적인 사회단위로서 성과 혈연에 의해 얽혀 있기때문에 각 개인마다 가정 내의 생활을 통해 인간관계를 배우며 사물에 대한 태도, 습관, 가치관, 성격 등을 습득하게 된다. 따라서 가정 내의 인간관계가 한 가정의 환경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와의 대용관계, 가정이 가지는 전통적 풍습, 관습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정의적인 측면이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촌가정은 산업화와 그에 따른 사회변화와 함께 가정기능의 변화·축소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자녀 사회화의 기본단위는 여전히 가정이며, 인간교육의 최선의 장소이자 기본적인 장소로 성숙한 인간을 키우는 기초가 되는 것이 가정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전통적 부자중심의 가족관계 또한 변화를 겪고 있고 부부 모두가 과중한 농업노동에 참여해야만 하는 현재 부모-자녀와의 대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변화와 단절의 시기가 농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 청소년들의 정서불안 수준은 점차 높아지는 실정이다. 또한, 부모들의 지나친 애정과 관심이 과보호로 나타날 수 있는데 자녀들은 자아 독립의 욕구 증대와 충돌하여 오히려 청소년들에게는 커다란 정신적 부담과 불만의 요소가 된다. 장인기(1983), 김은경(1984)은 부모의 이러한 태도가 청소년들의 정서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Bowlby(1981)는 청소년의 경우 불안은 모성실조(maternal deprivation)환경과 관련이 있고 이 모성실조는 청소년의 정서, 태도, 인성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밝히고 있다.

결론적으로 가정환경은 인간의 여러 가지 정의적

측면에 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인간의 기본성격을 형성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정환경변인이 한 개인의 지적 체계와 정서적 체계로 구성된 자아분화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2. 부모-자녀 유대관계

부모-자녀 관계에서 부모란 자녀에 있어서 최초로 갖는 사회적 관계의 대상이다. 청소년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 경험을 확장하고 발달시킨다. 따라서 자녀의 정서적 특성을 결정하는 많은 요인들이 부모 자신의 성격, 태도, 행동양식, 양육태도 등에 포함되어 있다(Love, 1970; Walters, 1971). Rosen(1972)도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를 관심과 무관심, 지배와 복종, 민주와 독재, 수용과 거부 등 4차원으로 분류하고, 부모의 수용적 태도는 아동에게 친절, 자신감, 안정감을 나타내게 해주고, 수용의 결여는 혼란, 불안, 반항 및 무력감을 나타나게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예컨대 부모-자녀 간의 관계가 바람직하면 자녀의 정서적 성장 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부모-자녀 간의 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 즉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무시할수록, 그리고 부모와의 접촉이 적을수록, 자녀가 부모의 의견을 무시할수록, 그리고 부모가 덜 헌신적일수록 문제행동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이길홍, 김현수, 민병근, 1982). 그러므로 아동과 부모와의 유대관계의 질과 유형은 청소년의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모-자녀와의 유대에 대한 개념은 Bowlby와 Rutter 등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논의된 바 있다(Parker, 1983). 부모와 자녀의 유대형태는 청소년의 심리적 및 신체적 증상과 관련이 깊다고 생각하였는데, 이러한 가설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는 Parker, Tupling 및 Brown(1979)에 의해 부모유대관계도구(Parental Bonding Instrument: PBI)가 개발되면서 활발해졌다. 이 검사는 자녀에게 나타나는 기능성 장애에서 위험 인자의 하나인 부모와의 유대특성을 측정하는 데 유용하다. 이미 이 도구를 이용하여 각종의 정신질환에서 부모와의 유대특성이 연구된

바 있다(Parker, 1979, 1981; Parker & Lipscombe, 1981). Parker(1981)는 부모의 보호 부족 및 높은 과보호와 불안신경증이 관계가 있음을 밝혔고, 부모의 보호 부족과 모의 과보호는 신경증적 우울과 관계가 있으며(Parker, 1979), 모친의 과보호는 건강염려증과 상관이 있었다(Baker & Merskey, 1982). 이렇게 부모와의 유대특성은 여러 가지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부모와의 초기경험이 청소년기의 성격발달, 대인관계 그리고 적응양식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가설도 제기되었다(Bornstein과 O'Neill, 1992). 그러나 이러한 부모-자녀의 유대특성이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지를 검증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유대형태가 청소년의 자아분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3. 자아분화

1) 자아분화의 개념

개인의 정신내부는 지적 체계(intellectual system)와 정서적 체계(emotional system)로 구성되어 있다. 지적 체계란 확고한 신념, 의견, 생활신조 등으로 이루어진 진아(solid-self; 자신의 신념이나 생활원리로 구성된 자아)를 말하며, 정서적 체계란 정서적 압박에 의해 형성되고 수정되는 가아(pseudo-self; 타인의 정서적 압력에 쉽게 굴복되는 자아)를 말한다. 따라서 자아분화란 지적 체계의 기능과 정서적 체계의 기능이 분리된 정도를 의미한다(Bowen, 1965; Kerr & Bowen, 1988). 지적 체계의 기능과 정서적 체계의 기능간에 구분이 잘 된 사람, 즉 자아분화가 잘 이루어진 사람은 긴장상태에 원활하게 대처할 능력이 있으며, 생활에 절서가 있다. 그러나 구분이 잘 되지 못한 사람은 감정에 의존하며, 적응력과 융통성이 부족하여 생활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Bowen, 1976). 왜냐하면, 지적 기능과 정서적 기능이 분화되지 못하고 융합(fusion) 됨으로써 융통성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Bowen은 각 분화 수준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Bowen, 1978). 자아분화 수준이 가장 낮

은 사람은 자아융합(ego-fusion)의 정도가 가장 심하며, 감정의 세계 속에 살고, 주위 사람들의 감정에 의존적이다. 그리고 관계 체계의 유지에 모든 에너지를 낭비하고, 자기가 느끼는 감정과 정서적 만족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린다.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의존적인 생활을 하여, 부모와 신체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정서적 애착을 추구하려고 한다.

자아분화 수준이 조금 낮은 사람은 자아융합의 정도는 조금 낮지만 자아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지 못하다. 다소나마 지적 체계에서 나온 자기신념과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스트레스나 긴장상황에서는 쉽게 변하여 정신병적 증상이나 비행을 나타내기 쉽다. 자아분화 수준이 어느 정도 높은 사람은 자아융합 정도가 아주 낮고 지적 체계에서 나온 뚜렷한 신념과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관계체계를 중시하면서도 자주적, 독립적, 목표지향적 활동을 할 수 있다. 자아분화 수준이 아주 높은 사람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원칙지향적, 목표지향적 삶을 살며 타인의 가치와 신념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견지해 나간다. 그리고 자기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시키지 않고 책임질 줄 알며, 타인과 친근한 정서적 관계를 맺으면서도 잘 정의된 자아를 유지해 나간다(Bowen, 1965; Garfinkel, 1980).

2) 자아분화와 융합

인간은 처음 태어날 때 각 개인의 자아가 가족에게 융합되어 동질화의 세력이 우세하다. Bowen이 처음 발견한 어머니와 자녀간의 공생관계도 어린이가 어머니에게서 분화되지 못하고 정서적 일체감(emotional oneness)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Bowen, 1965). 정서적 일체감이란 자아의 기능을 가르키는 말로서, 어머니뿐 아니라 전체 가족성원들과의 정서적 일체감을 “가족자아”(family ego mass)라 부른다(Bowen, 1976).

가족성원들이 각자 “미분화된 가족 자아”에서 분화되지 못하고 융합되어 있으면, 진아보다 가아들로 혼합된다. 진아는 타의 영향이나 직접적 만족추구를 위해 쉽게 변화되지 않은 생활 원리와 신념으로 구

성된 일관된 자아나, 가아들로 혼합된다. 진아는 타의 영향이나 직접적 만족추구를 위해 쉽게 변화되지 않은 생활 원리와 신념으로 구성된 자아이나, 가아는 타의 압력에 쉽게 굴복하는 비일관된 가치와 신념과 생활원리로 구성된다. 따라서 융합이 심한 가정은 가족 각자에게 자주성과 개성이 상실되고, 정서적 관계의 추구에만 에너지를 소비한다. 융합된 가정에서는 객관성, 지적 추리, 독립적 목표를 가지고 행동하지 못하며 가족 각자가 기존의 가족유형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주장할 줄 모른다. 따라서 각 가족성원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동조, 반항, 도피밖에 없다. 반항과 도피도 체제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기 때문에, 동조와 마찬가지로 본능적인 충동적 행위이다. 더욱이 이러한 행위는 가족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인간 관계에서도 반복된다(Bowen, 1976). 특히 융합이 심한 가정에서는 불안이나 변화를 경험할 때, 정서적 반응성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므로 자아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에서 개별화(individuation)와 동질화(togetherness)의 세력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균형이 이루어지려면 가족성원들은 서로 통제하거나 통제받으려 하기보다, 상호의존을 하면서 각자 자기 자주성과 개성을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Bowen, 1982).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1. 부모-자녀 유대관계의 유형과 자아분화정도는 어떠한가?
2. 부모-자녀 유대관계에 따른 자아분화의 차이가 있는가?
3. 가정환경변인과 부모-자녀 유대관계가 자아분화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용어정의

1. 부모-자녀유대관계(Parent-Bonding Relationship): 부모-자녀 유대관계는 부모-자녀의 정

서적 결합에서 작용하는 부모의 역할로 정의한다.

2. 자아분화(Differentiation of Self): 자아의 분화란 한 개인의 지성이 정서에서 분화된 정도를 말하며, 자기가 태어난 가정으로부터 개별화(individuation)된 정도를 말한다.

3. 조사도구 작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고등학생들의 일반적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가정환경 변인 문항과 부모-자녀유대관계 문항, 자아분화정도를 알아보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가정환경 변인

본 연구에 사용된 가정환경 변인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자들이 작성한 것으로 성별, 부직업, 모직업, 부학력, 모학력, 출생순위, 가정분위기, 가정생활만족도, 아버지 꾸중정도, 어머니 꾸중정도, 건강상태, 종교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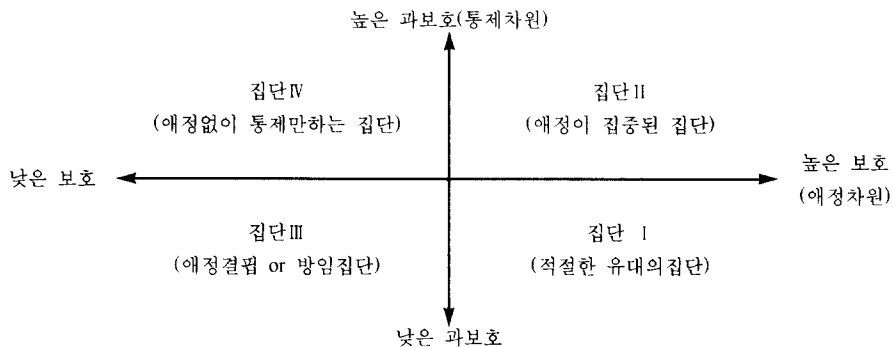
2) 부모-자녀 유대관계(Parent Bonding Instrument)

부모-자녀의 유대관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부모자녀 유대관계도구(Parent Bonding Instrument)를 사용하였는데, 이 도구는 자녀에게 나타나는 기능성 장애에서 위험 인자의 하나인 부모와의 유대관계를

측정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사용된다. 이것은 Parker (1979)등이 고안하였으며, Gamsa(1987)에 의해 개정된 문항을 송지영(1992)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것을 이용하였다. PBI는 자신에 대한 부모의 태도나 행동을 기억하여 각 항목에서 '아주 그렇다'에 4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어 4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이는 부모-자녀간의 유대관계에 작용하는 부모역할을 측정하는 것으로, 부모 각각에 대한 보호(care)차원을 측정하는 12개 문항과 과보호(overprotection)차원을 측정하는 13개 문항으로 전체 25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보호적, 과보호적으로 해석되며, 부모-자녀 유대관계형태에 따른 유형의 분류는 송지영(1992)이 표준화하여 제시한 PBI 척도들의 평균을 이용하여 부모 각각에 있어 과보호와 보호의 2축에 따라 4군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높은 보호와 낮은 과보호군(I 군), 높은 보호과 높은 과보호군(II 군), 낮은 보호와 낮은 과보호군(III 군) 및 낮은 보호와 높은 과보호군(IV 군)으로 나누었다 <그림 1>. 신뢰도 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Cronbach $\alpha = .707$ 이었다.

3) 자아분화 척도(Differentiation of self Scale: DOSS)

자아분화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Bowen의 이론에 입각하여 제석봉(1989)이 개발한 자아분화 척도 36개 문항을 본 연구에서 수정하여 30개 문항으로



<그림 1> 부모-자녀 유대관계 형태의 하위 영역

로 사용하였다. 자아분화 정도는 Bowen에서 중심적인 개념으로서, 지성이 정서에서 분화된 정도를 가리키며 5개의 하위요인(가족퇴행, 가족투사과정, 정서적단절, 인지적기능 대 정서적기능, 자아의 통합)을 포함하고 있다. 하위요인은 점수가 낮을수록 가족퇴행, 가족투사과정, 정서적 단절, 인지적기능 대 정서적기능, 자아의 통합이 심함을 의미하며, 자아분화 수준은 낮음을 의미한다. 각각의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점수가 높으면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문항전체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α = .839였다. 요인별 신뢰도 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자아분화척도의 신뢰도

자 아 분 화 척 도	문 항 수	Cronbach's α
요인 1 : 가족 퇴행	10	0.804
요인 2 : 가족 투사 과정	6	0.802
요인 3 : 정서적 단절	5	0.748
요인 4 : 인지적 기능대 정서적 기능	6	0.638
요인 5 : 자아의 통합	3	0.486
전 체	30	0.839

(N=593)

4. 조사대상

본 조사에 앞서 질문지 문항 이해도,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질문지 작성상의 문제점과 타당도 및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1996년 10월 4일부터 10월 8일까지 남,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100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 문안 수정 및 척도의 재구성을 하였고, 본 조사는 1996년 11월 15일부터 12월 10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800부를 배부하여 736부를 회수하였으며 그 중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한 600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하였다.

조사대상의 일반적 사항은 <표 2>과 같다.

5. 자료 분석

본 연구의 분석은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했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측정 도구 작성을 위하여 신뢰도(reliability), 요인 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1>을 검증하기 위하여 평균, 표준 편차를 산출하였고, <연구문제2>를 검증하기 위하여 ANOVA 및 사후검증(Scheffe' test)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3>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농촌 고등학생들의 부모-자녀 유대관계와 자아분화의 일반적 경향

1) 부모-자녀 유대관계형태

부모-자녀 유대관계도구(PBI)에서 제시된 분류방법에 따라 부의 보호, 부의 과보호, 모의 보호, 모의 과보호로 각각 분류하여 각 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즉, 모의 보호 평균이 35.68로 가장 높았으며 부의 보호 평균이 32.33, 부의 과보호 평균이 27.56, 모의 과보호 평균이 27.36 순으로 나타났다. 부, 모를 비교해보면 보호유형에서는 모가, 과보호유형에서는 부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한농교 외(1994), 최선남(1995)의 연구와 비교해보면 모의 보호, 부의 보호, 부의 과보호, 모의 과보호 평

〈표 2〉 조사대상의 일반적 성격

(N=600)

환경 변인	구 분	빈도(%)	환경 변인	구 분	빈도(%)
성 변	남 학 생	300(50.0)	출생순위	만 이	199(33.2)
	여 학 생	300(50.0)		중 간	140(23.3)
부직업	부 직	5(0.8)	가정분위기	막 내	237(39.5)
	농 축 산 업	305(50.8)		독자(외동딸)	22(3.7)
	노 무 직	22(3.7)	무 응 답	2(0.3)	
	판매서비스직	123(20.5)	가정생활 만족도	화목함	298(49.7)
	사 무 직	72(12.0)		보통임	255(42.5)
	전문/관리직	52(8.7)		화목하지 않음	46(7.7)
무 응 답	21(3.5)	무 응 답	1(0.2)		
모직업	부 직	111(18.5)	아버지 무중정도	만족함	261(43.5)
	농 축 산 업	279(46.5)		보통임	201(33.5)
	노 무 직	44(7.3)	불만임	137(22.8)	
	판매서비스직	109(18.2)	무응답	1(0.2)	
	사 무 직	30(5.0)	어머니 무중정도	안듣는편	470(78.3)
	전문/관리직	18(3.0)		보통임	72(12.0)
무 응 답	9(1.5)	듣는편임	38(6.3)		
부학력	국 졸	127(21.2)	무응답	20(3.3)	
	중 졸	180(30.0)	건강 상태	안듣는편	383(63.8)
	고 졸 이 상	268(44.7)		보통임	116(19.3)
	무 응 답	25(4.2)	듣는편임	96(16.0)	
모학력	국 졸	226(37.7)	무응답	5(0.8)	
	중 졸	240(40.0)	종 교	좋은편	339(56.5)
	고 졸 이 상	125(20.8)		보통임	194(32.3)
	무 응 답	9(1.5)	나쁜편	66(11.0)	
모학력	말이	199(33.2)	무응답	1(0.2)	
	중간	140(23.3)	종 교	기독교	94(15.7)
	막내	237(39.5)		천주교	43(7.2)
	독자(외동딸)	22(3.7)		불교	138(23.0)
	무응답	2(0.3)		무교	325(54.2)

〈표 3〉 청소년들이 지각한 부모-자녀 유대관계형태

(N=600)

유 형	Mean	S.D
부의 보호	32.33	6.08
부의 과보호	27.56	4.94
모의 보호	35.68	5.27
모의 과보호	27.36	4.95

균이 모두 본 연구결과에서 더 높게 나타났고 특히 부, 모의 보호변인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의미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순위로 보았을 때 모의 보호가 가장 높고 부의 보호가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은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Parker(1970)는 부모 특성이 크게 2가지 차원으로 분류된다고 보았다. 즉 '보호 대 무관심/거부'(care vs indifference/rejection)로 표현되는 애정(affection) 차원과 '과보호 대 독립성의 격려'(over protection

vs encouragement of independence)로 표현되는 통제(control)차원을 중심으로 PBI를 고안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송지영(1992)이 표준화하여 제시한 PBI 척도들의 평균을 이용하여 부모 각각에 있어 보호와 과보호의 두 축에 따라 4군으로 분류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부와의 유대관계에서는 높은 보호와 높은 과보호군(II군)이 52.1%, 낮은 보호와 낮은 과보호군(III군)이 28.5%, 높은 보호와 낮은 과보호군(I군)이 14.2%, 낮은 보호와 높은 과보호군(IV군)이 5.2%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와의 유대관계에서도 빈도의 차이는 있으나 II군-III군-I군-IV군 순으로, 부와의 유대관계와 같은 순으로 나타났다. 즉, 부, 모 모두 같은 맥락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Perkins(1974)에 의하면 부모간의 양육태도의 불일치가 되면 자녀들로 하여금 자신이 행할 행동에 관하여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게 되므로 성격발달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농촌지역에서의 부, 모가 같은 맥락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좋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Parker(1978)는 부모-자녀 유대관계 유형에서 적절한 유대관계(I군)가 자녀들의 긍정적 성격측면에 두드러짐과, 애정없이 통제만 하는 집단(IV군)에서는 부정적 성격측면이 두드러짐을 밝혔다(한농교 외, 1994).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본 연구에서 애정이 집중된 집단(II군)과 애정결핍집단(III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그다지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은 아닌 듯

하다.

2) 자아분화 수준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농촌 고등학생들의 자아분화 수준의 평균이 전체 2.84였다. 부산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명애(1992)의 연구결과에서는 자아분화 수준의 평균이 2.69, 서울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혜숙(1992)의 연구결과에서는 2.83, 전남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미란(1994)의 연구결과에서는 2.81, 경북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1997)의 결과에서는 2.84로, 선행 연구와 비교해보면 농촌지역의 고등학생들의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었다. 하위영역별로 보면 부부간의 갈등, 긴장 등을 특정자녀에게 투사시키는 정도를 나타내는 가족투사과정(2.92), 가족구성원들이 위기나 갈등 등을 대처해나가는 행동양식을 의미하는 가족퇴행(2.89), 대인관계에서 진아의 성숙정도를 의미하는 자아의 통합(2.83), 지적체계가 정서적 체계에서 얼마나 분리되어 기능하는가를 나타내는 인지적기능 대 정서적기능(2.79), 자녀가 부모에 대한 미해결된 정서적 단절(2.75) 순이었다. 즉, 농촌 고등학생들에게는 정서적 단절이 가장 심하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Bowen(1978)의 이론에서는 정서적 단절이 심할수록 부모와의 관계양상이 제삼자와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고 했다. 또한 정서적 단절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가출하려는 경향이 심하며 자기 출신

<표 4> 부모-자녀유대관계형태의 하위영역

(N=600)

	하 위 영 역(집단)	N	%
부와의 유대관계	I. 적절한 관계의 집단	81	14.2%
	II. 애정이 집중된 집단	298	52.1%
	III. 애정결핍 or 방임집단	163	28.5%
	IV. 애정없이 통제만 하는 집단	30	5.2%
모와의 유대관계	I. 적절한 관계의 집단	101	17.5%
	II. 애정이 집중된 집단	303	52.4%
	III. 애정결핍 or 방임집단	144	24.9%
	IV. 애정없이 통제만 하는 집단	30	5.2%

〈표 5〉 자아분화 수준의 일반적 경향

요 인	문 항	Mean	S.D
요인 I 가 족 퇴 행	26. 내가 자랄 때 우리 가족은 각자 자기의 본분을 다했다.	2.83	0.61
	27. 우리 가족은 심각한 일이 있어도 가족간의 금은 잘 가지 않는다.	2.82	0.70
	28. 가족간에 말썽이 있어도 서로 상의해 가며 잘 해결해 왔다.	2.57	0.70
	29. 우리 가정에는 소리를 지르거나 주먹다짐을 하는 일이 드물었다.	2.75	0.82
	30.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부모님은 차분하게 잘 처리하였다.	2.97	0.61
	31. 우리 가정은 대체적으로 화목하고 단란했던 편이다.	2.87	0.64
	32. 우리 가족은 각자 의견이 달라도 서로 존중해 준 편이다.	2.60	0.63
	34. 우리 가족은 사소한 문제에도 잘 싸웠다.	2.74	0.77
	35. 부모님은 나를 낳았을 뿐, 교육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3.35	0.74
	36. 우리 가족들은 서로에게 대해 별 관심이 없었다.	3.38	0.69
		2.89	0.42
요인 II 가 족 투 사 과 정	14. 자라면서 부모님께서 내게 대해 근심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다.	2.47	0.73
	15. 부모님은 내가 미덥지 못해서 지나치게 당부하는 일이 많다.	2.83	0.77
	16. 우리 부모는 형제들 중 유독 나 때문에 속을 많이 썩었다.	2.93	0.89
	17. 부모님은 내게만 문제가 없다면 아무 걱정이 없겠다는 말을 많이 했다.	3.21	0.87
	18. 내가 처한 상황은 부모님이 전부터 입버릇처럼 말해오던 대로이다.	3.06	0.73
19. 나의 걱정이나 근심은 옛날 부모님이 내게 말해오던 대로이다.	3.05	0.73	
		2.92	0.57
요인 III 정 서 적 단 절	20.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면 대단히 불편하리라 생각했다.	2.51	0.91
	21. 가정을 떠나는 것이 독립할 수 있는 좋은 길이다.	2.80	0.87
	22. 나는 부모님 슬하에서 하루 빨리 독립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았다.	2.66	0.86
	23. 부모님과 자주 다투기 보다는 안보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했다.	3.05	0.86
24. 나는 자라면서 집을 나가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껴 왔다.	2.77	0.88	
		2.75	0.62
요인 IV 인 지 적 기 능 대 정 서 적 기 능	2. 나는 말부터 해놓고 나중에 가서 그 말을 후회하는 일이 많다.	2.28	0.67
	3. 나는 비교적 내 감정을 잘 통제해 나가는 편이다.	2.65	0.67
	4. 나는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편이다.	2.94	0.74
	5. 나는 욕을 하고 무엇이고 부수고 싶은 충동을 자주 느낀다.	2.90	0.80
	6. 나는 다른 사람과의 싸움에 밀려드는 편이다.	3.20	0.70
	7. 나는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화를 잘 내는 편이다.	2.79	0.75
			2.79
요인 V 자 아 의 통 합	11. 내말이나 의견에 남의 비판을 받으면 얼른 바꾼다.	2.80	0.66
	12. 내 계획이 주위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잘 바꾼다.	2.78	0.65
	13. 주위의 말을 참작은 해도 어디까지나 내 소신에 따라 결정한다.	2.91	0.60
		2.83	0.45
전 체		2.84	0.30

가정의 중요성을 부인한다(Bowen, 1978; Kerr, 1981; Reifman, 1986). 정서적으로 단절된 자녀들은 실제적으로 부모와의 밀착을 필요로 하면서도 과민하게 기

피하려 하는데 그 정도가 심해지면 부모와 사는 동안 자신을 고립시키는 증상을 나타낸다(이명홍, 1984). 이러한 세대간의 정서적 단절은 최근에 와서

세대차(generation gap)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강은옥, 1983). 또한 자아분화의 하위영역중 김치영(1990)의 연구결과에서는 자아의 통합이, 권미영(1993)의 연구결과에서는 가족투사과정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이 다르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본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2. 부모-자녀 유대관계에 따른 자아분화 차이검증

부모-자녀 유대관계에 따른 자아분화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집단간의 개별비교는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6>.

<표 6>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부와의 유대관계에서나 모와의 유대관계 모두 4집단간의 P<.001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적절한 유대관계 집단과 애정없이 통제만하는 집단의 차이, 애정이 집중된 집단과 애정결핍 집단의 차이, 적절한 유대관계 집단과 애정이 집중된 집단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자아분화 수준의 평균으로보면 부,모 모두 적절한 유대관계가 자아분화 수준이 가장 높았고 애정이 집중된 집단, 애정결핍 혹은 방임집단, 애정없이 통제만하는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적절한 유대관계일 때 자아분화 수준이 가장 높은 것은 Parker(1979)가 주장한 적절한 유대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성숙되고 안정성이 있으며 긍정적인 성격측면이 두드러진다고

한 점(한농교 외, 1994)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Bowen(1982)의 이론에서 자아분화 수준이 높으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타인과 친근한 관계를 맺으면서도 잘 정의된 자아를 유지해 나간다(Garfinkel, 1980)라고 한 것은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가 건강하고 올바르게 기능하려면 자기자신과 타인 그리고 환경을 올바르게 지각하고 그에 대한 적응력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생활을 처리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자아의 확립과 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자아분화는 인간의 생득적인 경향이기도 하나 가족체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미분화된 자아, 문제성을 가진 부모는 자녀의 정신건강을 침해한다는 조은숙(1983)의 연구결과와 분화된 가족 내에서 성장하는 자녀는 특수한 기법을 익히지 않아도 관찰, 모방, 동일시 등을 통하여 자아분화가 촉진된다는 정미란(1994)의 연구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부모-자녀간의 바람직한 관계정립이 절실히 요망된다고 하겠다.

가정 내에서의 부모와의 관계가 대부분 사회생활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Tauschke 등, 1990) 부모와의 초기경험이 성격발달, 대인관계, 적응양식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Bornstein과 O'Neill(1992)에 따르면 본 연구결과에서의 자아분화 수준이 가장 높은 적절한 유대관계가 가장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다.

<표 6> 부모-자녀 유대관계에 따른 자아분화

변 인	구 분	평균(빈도)	S.D	F값	Scheffe'
부와의 유대관계	I. 적절한 유대관계집단	3.08(63)	0.28	21.47	a a a
	II. 애정이 집중된 관계집단	2.87(204)	0.27		a b
	III. 애정결핍 혹은 방임집단	2.77(254)	0.29		b
	IV. 애정없이 통제만 하는 집단	2.74(25)	0.32		b
모와의 유대관계	I. 적절한 유대관계집단	3.05(84)	0.30	23.10	a a a
	II. 애정이 집중된 관계집단	2.85(195)	0.30		a b
	III. 애정결핍 혹은 방임집단	2.77(243)	0.27		b
	IV. 애정없이 통제만 하는 집단	2.69(28)	0.23		b

*** P < .001

3. 환경변인 및 부모-자녀 유대관계가 자아분화에 미치는 영향력

농촌 고등학생들의 자아분화에 미치는 변인 및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 회귀분석에 앞서 변인들간의 상관분석을 한 결과 $r = .7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배제되었다. 아울러 독립변인중 성별은 명명 척도이므로 가변수(dummy)화 하였다(여:0, 남:1).

<표 7>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환경변인 및 부모-자녀 유대관계가 자아분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는 부의 과보호($\beta = -.26$), 모의 보호($\beta = -.21$), 부의 보호($\beta = .18$), 모의 꾸중($\beta = -.14$), 성별($\beta = .13$), 가정분 위기($\beta = .14$), 부의 꾸중($\beta = .12$), 건강($\beta = .07$)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50.0%였다. 즉, 부의 과보호는 낮을수록, 모의 보호는 높을수록, 부의 보호는 높을수록, 모의꾸중은 적을수록,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가정분위기는 화목할수록, 부의 꾸중은 적을수록, 건강은 좋을수록 자아분화 수준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서 부모의 보호가 높을수록 즉, 애정이 많을수록 자아분화 수준이 높다는 것은 Walters(1971)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애정의 태도에 따라 자녀의 안정 또는 불안정이 형성된다고 한 것과 Rosen(1972)이 부모의 수용적 태도가 자녀의 안정감, 자신감을 나타내게 해준다는 연구결과로서 Bowen(1982)의 자아분화 수준이 높으면 정서적으로 안정된다는 이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본 연구결과를 어느 정도 지지해주고 있다. 또한 부모의 꾸중이 적을수록 자아분화 수준이 높다는 것은 정미란(1994)의 꾸중이나 벌 등의 통제보다는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서 자녀 스스로 사고와 추리에 의해 수정하도록 배려하여 지적기능분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연구결과에서 본 연구결과를 더욱 지지해주고 있다. 아울러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아분화 수준이 높다는 것도 정미란(199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이는 아마 부모의 자녀의 성별에 따른 차별적 영향인 듯 하다(Medinus, 1965; Schaeffer & Bayley, 1963).

가정분위기가 화목할수록 자아분화 수준이 높다는 것은 가정의 온정적 분위기가 건전한 대인행동을 발

<표 7> 환경변인 및 부모-자녀 유대관계가 자아분화에 미치는 영향력

종 속 변 인 : 자 아 분 화		
독립변인	회귀 계수(B)	표준화 계수(β)
부의과보호	-0.49	-0.26***
모의 보호	0.37	0.21***
부의 보호	0.28	0.18***
모의꾸중	-0.84	-0.14***
성 별	-2.41	-0.13***
가정분위기	-1.06	-0.14***
부의꾸중	-1.02	-0.12***
건 상	-0.49	-0.07*
R ²	0.50	
Adjusted R ²	0.50	
F Value	60.84***	

* P < .05 *** P < .001

달시키며 성숙된 성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김민환(1987), Whitaker(1993)의 선행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자아분화 수준에 부의 과보호변인이 가장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은 농촌가정은 가부장적이어서 가장에게 많이 의존되어 있고 특히 부의 권한이 절대적이라는(이광규, 1984)점에서 볼 때 부의 과보호변인이 자아분화에 큰 영향변인으로서 작용됨을 이해할 수 있겠다. 다만 부의 역할이 높은 과보호일 때, 즉, 통제가 심한 역할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자아분화가 이루어진 사람은 자신과 타인 그리고 외부세계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지각하며, 대인관계에서도 정서적 융합을 이루지 않고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입장을 취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뿐만 아니라 목표지향적 삶을 산다(Bowen, 1982; Hansen & L'Abate, 1982). 또한 한 가족의 기능과 개인의 기능을 자아분화라는 한 연속선상에 놓고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정택과 심혜숙, 1993)라는 맥락에서 볼 때 자아분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즉 부모-자녀 유대관계와 환경변인 등에 주의를 기울여 청소년들을 지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부모-자녀 유대관계의 유형과 자아분화 정도를 알아보고, 또한 부모-자녀 유대관계에 따른 자아분화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며, 아울러 가정환경변인과 부모자녀유대관계가 자아분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혀봄으로써 농촌 고등학생들의 부적응이나 문제행동을 지도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 제공에 목적을 두었다. 조사대상은 읍, 면 소재지를 단위로 한 5개군에 있는 남, 녀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생 6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측정도구는 일반사항을 알아보는 환경변인과 부모-자녀유대관계척도(PBI)와 자아분화척도(DOSS)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적률상관분석 ANOVA 및 Scheffe'의 사후검증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와 해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부모-자녀 유대관계에서 보호유형에서는 모가, 과보호유형에서는 부가 더 높게 나타났다. 부모-자녀 유대관계형태의 하위영역별로 빈도를 살펴보면 부와 모 모두 애정이 집중된 집단(II군)이 가장 많았고 애정결핍집단(III군), 적절한 유대관계의 집단(I군), 애정없이 통제만 하는 집단순으로 나타났다. 농촌 고등학생들의 자아분화 수준은 2.84로 나타났다.

2. 부모-자녀 유대관계에 따른 자아분화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부모-자녀 유대관계에서는 부, 모 모두 $P<.001$ 수준에서 하위영역 4집단간 차이를 보였다. 즉, 적절한 유대관계 집단이 자아분화 수준이 가장 높았고 애정이 집중된 집단, 애정결핍집단, 애정없이 통제만 하는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3. 자아분화 수준에 미치는 가정환경 변인과 부모-자녀 유대관계유형을 조사한 결과 가정환경 변인에서는 부, 모 꾸중, 성별, 가정분위기, 건강이 영향력 있는 변인이며 부모-자녀 유대관계에서는 부의 과보호, 모의 보호, 부의 보호가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부, 모 꾸중이 적을수록,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가정분위기는 만족할수록, 건강은 좋을수록, 자아분화 수준이 높았고, 부와 모의 보호(애정)가 많

을수록, 부의 과보호(통제)가 적을수록 자아분화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가 증대되더라도 잘 정의된 신념과 원칙에 따라 생활하기 때문에 자기정서를 통제하며 두 세력의 균형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Bowen, 1982). 따라서 분화는 Bowen 이론에서 치료의 목표인 동시에 성장의 목표이기도 하다(Bowen, 1976). 다시 말해 개인이 미분화된 가족자아에서 자신을 분리시켜 정체감을 형성하고 자기 충동적, 정서적 사고와 행동에서 자유를 획득해 나가는 과정이다(Vanderkooi, 1984). 부모와의 관계가 대인관계 및 적응양식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제기와 더불어 생각해보면 부모-자녀관계는 인간의 여러 가지 정의적 측면에 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인간의 기본성격을 형성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부모의 역할중 적절한 유대관계가 농촌지역에서는 그 빈도가 낮았으므로, 앞으로 많은 애정과 더불어 자녀들이 독립적, 자율성을 격려할 수 있는 적절한 유대관계로서의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 교육 Program등이 다양하게 나왔으면 한다.

2. 본 연구는 가정환경 변인과 부모-자녀 유대관계와 자아분화의 척도를 청소년들의 평가만을 활용하였으나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부모나 다른 가족 구성원의 평가를 함께 다루어 가족구성원 모두를 연구에 포함시켜 Bowen의 이론에 근거한 바 다세대 가족역사를 살펴봄으로써 가족치료에 유용한 자료를 얻을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Bowen의 가족체계이론에서의 자아분화는 가족역동성이 개인의 역기능적인 행동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기제를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Bowen의 체계모델을 근거로 한 연구가 아주 부족한 실정이므로 좀더 많은 연구가 나와서 타모델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가족구성원의 건강함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참 고 문 헌】

- 1) 강은옥(1983). 가족치료에 있어서 Bowen의 이론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권미영(1993).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부적응증상 및 문제행동과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김민환(1987). 가정환경이 통제의 소재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김은경(1984). 가정환경과 개인문제 해결인식과의 과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 김정택과 심혜숙, (1993). 자아분화 개념을 통한 Bowen의 정신역동적 가족치료의 특징. 한국가족치료학회지 창간호. 31~45.
- 6) 김치영(1990). 청소년의 자아분화 수준 및 부모-자녀간 커뮤니케이션 정도와의 관계,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송지영(1992). 한국판 부모-자녀 결합 형태검사 (Parental Bonding Instrument):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신경정신의학. 31, 979~992.
- 8) 이광규(1984). 한국가족의 구조분석. 서울, 일지사.
- 9) 이길홍, 김현수, 민병근(1982). 학생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가정의 심리 풍토 특성과의 관계에 대한 상관분석. 신경정신의학. 21, 4, 611~627.
- 10) 이명애(1992). 고등학생의 자아분화와 심리적 분리와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1) 이명홍(1984). 가족치료의 기본원리와 Growth-oriented approach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학회지 6호, 한국사회복지학회.
- 12) 이혜숙(1992).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 13) 임호균(1986). "심약해지는 어린이". 우리 청소년 제2호.
- 14) 정미란(1994). 청소년의 발달시기에 따른 자아분화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5) 제석봉(1989). 자아분화와 역기능적 행동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6) 조은숙(1983). 정신위생, 서울 중앙적성 출판사. 30.
- 17) 최선남(1995). 가족환경 변인 및 아동기 부모-자녀 결합 형태가 청소년의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
- 18) 한농교, 이중용, 심용관(1994). 성격요인과 아동기 부모-자녀 결합형태 및 가족환경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33, 1, 200~210.
- 19) Baker, B. & Merskey, H.(1982). Parental representation of hypochondriacal patients from a psychiatric hospital.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1, 233~238.
- 20) Bloom, J.(1964). *Stability and Change in Human Characteristics*.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21) Bornstein RF, O'Neill RM(1992). Parental perception and psychopathology. *J Nerv Ment Dis*. 180, 475~483.
- 22) Bowen, M.(1965). Family psychotherapy with schizophrenia in the Hospital and in Private Practice. In I. Boszomenyi-Nagy & J. L. Framo (Eds.). *Intensive Family Therapy*. New York: Harper & Row.
- 23) Bowen, M.(1976). Theor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In Guerin, P. J.(Ed.), *Family Therapy*. New York: Gardner Press.
- 24) Bowen, M.(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Jason Aronson.
- 25) Bowen, M.(1982).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Jason n Aronson.
- 26) Bowlby, J.(1981). *Attachment and Loss*. London: Penguin Books Ltd. 45~52.
- 27) Burger GK, Armentrout JA, Rapfogel RG(1975). Recalled parental behavior and objective personality measures. *J Pers Assess*. 39, 514~522.
- 28) Coddington, R. D.(1972). The significance of Life Events as Etiologic Factors in the Disease of Children. A Study of a Normal Population,

- Journal of Psychological Research*. Vol.16.
- 29) Fine, M. & Hovestadt, A.(1984). Perception of marriage and rationality by levels of perceived health in the family of origi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0, 193~195.
 - 30) Gamsa A(1987). A not on a modification of the parental Bonding Instrument. *Br J Med Psychol*. 60, 291~294.
 - 31) Garfinkel, H. N.(1980). *Family system personality profile: An assessment instrument based on Bowen theo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 32) Hansen, J. C. & L'Abate, L.(1982). *Approaches to family therapy*. New York: Macmillan.
 - 33) Hartman, A.(1981). Bowen family systems: Theory and practice. In E. R. Tolson & W. J. Reid(Eds.). *Models of family treatment*.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 34) Hoffman, J. A. & Weiss, B.(1987). Family dynamics and presenting problems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 (2), 157~163.
 - 35) Jurich, A. P. & Jurich, J. A.(1975). The lost adolescent syndrome. *Family Coordinator*. 357~361.
 - 36) Kerr, M. E. & Bowen, M.(1988). *Family Evaluation*. New York: Norton & company.
 - 37) Kerr, M. E.(1981). Family systems theory and therapy. In Garman, A. S. & Kniskern, D. P. (Eds.), *Handbook of family therapy*. New York: Bruner/Mazel.
 - 38) Kleiman, J.(1981). Optimal and normal family functioning.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9, 37~46.
 - 39) Kuncie, J. T. & Priesmeyer M. L(1985). Measuring family dynamic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2, (1), 40~46.
 - 40) Lewis, J. M., Beavers, W., Gossett, J & Phillips, V.(1976). *No single tread: Psychological health in family therapy*. New York: Bruner/Mazel.
 - 41) Medinus, G. R.(1965). Adolescent self-Acceptance and perception of their parents, *Journal of Consult Psychology*. 150~154.
 - 42) Parker, G. & Lipscombe, P.(1981). Influences on maternal overprotection. *Br J Psychiatry*. 138, 303~311.
 - 43) Parker, G.(1981a). Parental representation of patients with anxiety neurosis. *Acta Psychiatry Scand*. 63, 33~36.
 - 44) Parker, G.(1981b). Parental reports of depressives. *J Affective Disord*. 3, 131~140.
 - 45) Parker, G.(1983). *Parental overprotection*. New York, Grune & Stratton.
 - 46) Parker G(1979). Parental characteristics in relation to depressive disorder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4. 138~147.
 - 47) Parker G, Tupling H, Brown LB(1979). A Parental Bonding Instrument. *Br J Med Psychol*. 52, 1~10.
 - 48) Perkins, H. U.(1974). *Human Development and Learning*, 2nd ed.,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Inc. 130.
 - 49) Reifman, A.(1986). Emotional cutoff and the qualities of intimate relationship.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ted States International Univ.
 - 50) Rollins, B. C. & Thomas, D. L.(1975). A Theory of Parental Power and Child Compliance. In R. C. Cromwell and D. H. Olson(Eds.), *Power in Families*. New York: Halsted and John Wiley.
 - 51) Rosen, R. E.(1972). *Abnormal Psychology*. Philadelphia: W. B. Saunders Co. 122~123.
 - 52) Schaeffer, E. S. & Bayley, N.(1963). Maternal Behavior, Child Behavior and their intercorrelations from infancy through adolescence, Monoger. Soc. Res. In Child Develop. 127.
 - 53) Tauschke E, Merskey H, Helmes E(1990). A systinquiry into recollections of childhood expand

- their relationship to adult defence mecha *Br J Psychiatry*. 157, 392~398.
- 54) VanderKooi, I. k. & Handelsman, M. M.(1984). Toward an integration of Jungian and Howen perspectives on psychotherapy. *Family Therapy*. 6.
- 55) Walters, J. & Stinnett, N.(1971). Parent-child Relationships: A Decade Riview of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3, 70~103.
- 56) Whitaker, B. R.(1993). Differentiationof self and retention in higher education of eastern kentukey appalachian students(student retention, self). University of Kentukey. 178.